

## 조류인플루엔자, 무조건 '쉬쉬' 만이 능사 아니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지도 필요

조류인플루엔자(AI)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양계농가들이 많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최악의 가상시나리오 발표를 시작으로 가금산업에 연관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혼란의 소용돌이에 함께 빠져들었다.

1918년 스페인 독감과 견주어 21세기 흑사병이 될 수 있다는 자극적인 보도가 같은 해 10월부터 연일 주요 일간지와 방송을 오르내리며 불안 심리만을 조성시키고 있었다.

마치 조류인플루엔자가 인류의 재앙으로 치달을 것처럼 보도하는 통에 소비자들이 양계산물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닭고기 소비가 50%까지 떨어지고 육계가격이 생산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격까지 하락해 양계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지난 2003~200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발생했을 당시에도 닭고기 소비가 90% 가까이 급감했다. 닭고기 생산업체가 줄줄이 도산하고 생산농가들이 연이어 파산에 이르렀다.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우리나라 양계산업에 더 이상 회생의 길이



이 경 희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을 지키기 위한 생산농가와 관련업체, 정부의 노력으로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에 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1조원에 이르렀

고 이후 양계산업이 그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1년여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아직도 그때의 피해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벼랑 끝으로 내몰린 양계산업이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다.

과거에 이런 고통스런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류인플루엔자라는 단어가 결코 무책임하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될 수 없다. 2003~200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2005년 국내에서 발병하지도 않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선정적 보도와 발표로 인한 피해까지 관련업체와 농가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매년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이 되풀이되지는 않을지, 특히 지난해처럼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입은 피해를 돌이켜볼 때 언론이나 질병관리본부 등의 발표, 보도 하나하

## 10

나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조류인플루엔자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이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 우리 주변국가에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역대책과 긴장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된다. 또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파동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 요인이 되는 북방철새의 국내 도래시기가 다가오는 10월이 되면 철새 등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데 이때마다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보도나 발표로 관련농가나 업체들의 피해를 야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농림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철새 예찰과 농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등 방역기관 간에 역할을 분담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양계농가, 생산자 단체들도 연이은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에 휩싸이지 않도록 자체 차단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각 도지회, 시군지부, AI대책

위원회로 구성된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외협력 및 운영반·농가홍보반·소비대책반·수급조절반 등으로 이뤄진 4개 팀을 상시체제로 가동하고 있다. 또 농림부의 특별방역기간에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대책본부도 역시 특별기간을 정해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계육협회 역시 회원사들과 농가들로 구성된 AI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농





가금관련 농가들 역시 스스로의 자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언급을 무조건 쉬쉬하지 말고 정확히 알리는 데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도 차단방역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지도를 관련 농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가들에게 차단방역조치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적극 홍보, 지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자단체들과 농가들 스스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체제를 갖추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일간지 등 언론 역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보도 대신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할 때이다. 일반 국민들과 가금관련 농가들에게 막연한 공포심과 피해만을 야기시키는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무책임한 경고성 보도가 아닌 조류인플루엔자의 차단과 방역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매체가 되어 정부와 관련업체, 농가들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금관련 농가들 역시 스스로의 자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언급을 무조건 쉬쉬하지 말고 정확히 알리는 데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도 차단방역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지도를 관련 농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조류인플루엔자를 매년 찾아오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에 대응해 나가는데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의 위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